

추억이 가득 담긴 현대빌라 3층

박소율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날씨: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밤공기

몇 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현대빌라’를 떠올리면 더운 여름에도 차가운 공기가 코로 쏙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 할머니와 나는 아주 오래된 ‘현대빌라’ 3층에서 살았다. 이름은 ‘현대’인데 아주 오래된 빨간 벽돌집 빌라이다. ‘현대’라는 글자도 흐려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인 현대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해야 했다. 할머니는 2층만 올라가도 힘이 들어서 헉헉 숨을 가쁘게 내쉬셨다. 3층 계단을 겨우 올라오면 현관문에 들어오자마자 막 쌓아 놓은 나무 블록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푹 쓰러지셨다. 머리를 마룻바닥에 쿵 짱어도 한참이나 그대로 계셨다.

계단의 손잡이는 녹이 슬어서 회색 손잡이가 꺼칠꺼칠한 갈색이 되었고, 현관문은 뚱뚱한 어른이 놀이터의 그네에 타서 흔들릴 때 나는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냈다.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서 집에서도 두꺼운 점퍼를 입고 이불도 덮고 있었다.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으슬으슬 차가운 바람이 현관문 틈 사이로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뽕뽕 들어왔다. 할머니는 창문과 현관문에 바람을 막는 테이프를 꼭꼭 붙였다. 하지만 겨울바람은 테이프 따위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주먹을 한 방 획 날리고 우다다다 달려 들어왔다. 그래도 할머니와 꼭 안고 있으면 바람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뒷걸음질 치며 뒤로 물러나곤 했다.

현대빌라에서 가장 즐거웠던 추억은 ‘고양이 관찰하기’였다. 현대빌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길고양이가 더 많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길고양이들은 내가 가까이 가도 꿈쩍도 하지 않고 마치 현대빌라가 자기 집인 것처럼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아서 도둑고양이라고 부르면 화를 낼 것 같은 얼굴을 하며 개구리 뒷다리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할머니와 함께 고양이를 한참 쳐다보면서 이름도 지어 주었다. 하지만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가 많아서 그다음 날에는 이름이 헛갈려 다시 지어 주곤 했다.

현대빌라는 어린이가 단 한 명, 나밖에 없었다. 모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뿐이라서 늘 심심했다. 친구와 함께 ‘얼음뎡’도 하고 싶었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하고 싶었다. 아니, 아무리 재미없는 놀이도 친구와 함께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루 종일 술래가 되어도 웃으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햇별은 현대빌라만 비추지 않았다. 심술궂은 바람만 현대빌라 주위를 뱅뱅 돌았다.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이사를 나가기 시작했다. 어두웠던 빌라가 더 어둡게 느껴졌다. 결국 현대빌라에는 할머니와 나만 남게 되었다.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더 어둡고 차가워졌다. 무서워서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너무 무서워하면 할머니는 나를 안고 3층까지 올라가기도 하셨다.

“이제 우리도 이사를 가야겠다.”

할머니는 우리도 떠날 때가 되었다며 집을 찾아보셨다.

나는 놀이터도 있고 햇볕도 따뜻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놀이터에 그네도 있고 친구들도 많은 곳을 상상했다. 상상만 해도 신이 나서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할머니와 나는 부채 모양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가을에 현대빌라를 떠나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새로 이사 간 아파트에는 베란다에 햇볕이 한가득 들어와서 식물이 잘 자랐다. 할머니의 취미가 식물 키우기였다는 걸 그때 알았다. 꽃 화분이 5개, 나무를 심은 화분 3개, 선인장 화분 2개이다. 초록 화분들은 보기만 해도 방글방글 웃음이 났다. 내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1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숨에 올라갈 수도 있다. 제일 처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는 너무 신이 나서 깝 소리를 지를 뻔했다. 아늑하고 따뜻한 아파트가 옛날 현대빌라의 생각을 다 지워 버렸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현대빌라에 사는 길고양이들이다.

우리가 이사를 나오자마자 현대빌라를 부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

고 했다. 현대빌라가 있었던 자리에는 아파트를 짓느라 가림막을 높게 해 두었다.

길고양이들이 어디로 갔을지 걱정이 되어 할머니와 함께 공사장 근처를 가 보려고 했다. 하지만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위험하다고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셨다. 길고양이들은 집을 잃고 어디로 갔을까?

낡은 현대빌라였지만 고양이들에게는 아늑한 보금자리였을 것이다. 현관문이 삐걱대는 소리가 고양이들에게는 음악 소리가 되고, 덜컹거리는 창문 소리는 자장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 담긴 현대빌라는 사라졌다. 고양이들도 함께.

하지만 할머니와 나는 아파트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아 갈 것이다. 아마 고양이들도 다른 멋진 곳을 찾아 그곳에서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있을 것이다.